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4 3

요즈음 블로그를 계속해서 단숨에 써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에 써놓았던 것을 다시 정리, 보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8 개월째 접어들어서는 아무래도 많이 지쳐있는 제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지를 연일 동분서주하는 동안 체중도 확실히 늘었습니다.

지진 재해 때 계속되던 통조림 생활의 반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차려주시는 대로 맛있는 것을 남김없이 깔끔하게 완전히 만복상태가 될 때까지 배를 채우기 때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수척할 거라는 지진재해를 당한 목사의 이미지와는 영 딴판으로 보이지 않을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처럼 생활도구를 넣은 박스로 살아가는 목사로서의 본을 보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정말 이대로 통통 불어버리면 어찌지요?

지진재해 당시에는 9 킬로나 여위었다며 당당하게 외치던 그 외침이 허무할 정도로 지금은 당시의 모습을 찾아볼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본을 보여야할 목사로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해서 “아무쪼록 더이상 살찌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 못 먹은 양까지 생각해서 대접해주시는 것은 진정 감사한 일입니다만 모처럼의 다이어트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좀 슬프기도 하고,,, 아니 기쁘다고 말해야겠지요.

슬픈 반면에 기쁘기 때문에 슬,기쁘다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보니 기쁨과 슬픔이 얼키설키 뒤얽혀있는 것 같은 세계가 지진재해 후에 여기저기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건축하고 있는 교회도 아주 신실한 맛이 배인 교회로써 세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운지 얼마 되지 않은 새교회를 두고 왜 또 다시 교회를 건축해야만 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갑자기 슬픔이 가슴을 저칩니다.

새교회는 날개를 활짝 펴고 새가 고향을 향해 최종 여행길에 오르기 전, 충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희망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이전의 새교회를 간단히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착잡해져서 그만 뒷걸음질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여기까지 겨우 도착했으니 불평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렵니다.
마음에 든 교회가 폐쇄 된 것은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진 재해를 당한 결과로서
또하나의 다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진정 기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슬,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는지요.

그리고보니 요전에 후쿠오카에서의 집회 때는 이전 후쿠시마 제 1 성서 침례교회의
성도님 세 분이 와주셨습니다. 한 부부는 멀리 떨어진 야마구치현에서, 또 한 분은 차로
2 시간 걸리는 오이타현에서 달려오셨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먼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성도님을 또다시 생각지도 않았던 타 지역에서 재회하니 말로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반가움과 함께 애뜻함이 엉겨 복받쳐오름을 억누를 길 없었습니다. 무어라 말해야
될는지,,, 슬,기쁨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어쩐지 이러한 슬,기쁨의 기묘한 생활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도록 기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 월 22 일(화) 교토행 신간선에서

사토 아키라(佐藤彰)